



3면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권리 찾아야"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음 3월 1일) 제32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주)LG화학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슈웨이 중국 절강화유코발트 부총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참석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주)LG화학,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는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을 위해 국내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현재 전북도에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기업 집적화 가속화 따라 산업 생태계 빠르게 구축 중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등과 1조2000억 규모 투자협약
김관영 도지사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 노력할 것"

구축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0~2022년까지 3년 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22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총 1조8,899억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올해 4월 현재에는 투자협약 5건에 총 2조9,942억의 투자유치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19일 1조2,000억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LG화학과 절강화유코발트가 입주하는 새만금 산업의 경우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예코앤드림(양극소재), 대주전자재료(음극소재), 천보EIS, 덕산테크코퍼레이션(전해질), 성일하이텍(리싸이클링) 등 관련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은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

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주)LG화학과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인 구축이 필요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글로벌 공급 경

쟁력을 갖춘 (주)LG화학·절강화유코발트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한다"면서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새만금 산업에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관련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군산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기반으로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 최고의 종합 전지 소재회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치를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여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결실을 맺도록,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통해 전북도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열의를 담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군산=이재훈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취재기자(군산)	"	"
지역취재기자(완주)	"	"

▲ 접수기간 2023년 4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경기장 시설 안전 유지 최선

아·태 마스터스 조직위, 스포츠안전재단과 합동점검 추진
재단 개발 안전점검지표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결과 조직위 제공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대추재인 2023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가 문체부 산하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경기장 시설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그동안 경기장 환경조성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경기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시군 체육부서 및 도내 종목단체와 함께 42개소 경기장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함께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홍)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와 교육과 공제 연구 등에 매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파견해 현장에서 경기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직위와 재단과 시군체육부서, 시설관리부서와 함께하는 점검에서는

재단이 자체개발한 4P 스포츠행사 안전점검지표(Plan, People, Place, Product)를 바탕으로 안전점검위원이 현장에서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조직위 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장 안전에 대한 위험을 불식시키고 참가자가 많이 몰려있는 전주, 군산, 익산 내 경기장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장 환경을 참가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강우 2023전북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시안·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스포츠안전재단과의 합동 점검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경기장 시설물을 점검해 안전한 경기장 조성을 통해 전북을 찾은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